



... 우리의 目標 ...

- 1 在日僑胞의 救霊
- 2 祖国統一의 實現
- 3 韓・日兩國의 和解

教会青年会發展策을 討議

二月七日부터 三日間 KCC에서

教青의 어제 오늘來日 論議

교회청년회 자문적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문제연구위원회는二月七日부터三日間 大阪기독교교회관에 모여 청년운동의 어제 오늘 내일이란 주제로 공동토의를 했다

출석자는 황의생 청년국장을 비롯하여 김원치 김경찬 이인하 김득삼 최경식 최정수 이창우 정수원 김안홍 최충식 유석준 이소용 김덕수 신영자 최수현 배국향 등이었다

주제설정과 회의운영에 대하여 정수원목사는 청년국활동을 총정리하여 노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도 제한하여 뜻있는 회의성과를 얻고자 한다 했다

과 전망이 논의되어 많은 성과를 얻도록 하자 고했다

청년활동의 《어제》에 대하여 유석준장로는 요지 다음과 같은 비판을 했다

① 교회청년지도자들 사이에 지도이념이 확실치 못했기에 교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었다 인재뿐만 아니라 국어이해에 있어서는 거의 있어버린 현상으로 되어 있다

(2) 청년회원 자격에 연령을 제한했기에 유기적 활동이 단절되어 단계가 되었다

(3) 목표없이 이론적 집회만 많아 경비와 시간의 낭비만이 생겼다

(4) 총회에 있어서도 청년지도는 청년자체에 맡긴다는 방만한 결과 일본의 동화정책에 화하는 결과에 이르러 있다

같은 주제《어제》는 즉 지난날의 청년운동에 대하여 이인하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청년회활동을 목적으로 연단과 선교교육과 전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진기독교청년운동은 압박받는 민족구출에 사명을 느끼고 활동하여 왔었다 전후의 기독교청년운동에 있어서는 일본사회와 신학의 영향에 의하여 발상법이 달라졌다 거기에 일세의 보수성과의 대립이 더욱 크게 크로즈업했다

그러나 교회는 일본에서의 입장을 독자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자기를 양성하고 복음에 사는 신앙을 모색하여 왔다

宣教60周年 伝道大会

講師 서울永樂教会牧師

韓 景 耘 博 士

2月 26日 大阪女学院

※ 宣教60周年記念準備 第1回連合礼拝

主催 在日大韓基督教會関西地方會



설하는 유치원 사업에 총회는 건축위원회의 감독과 총회 교육국의 관리권을 확립하기로 하고 테비스선교사를 이사진에 참가케 했다 2월 17일에 건축위원장집회에 상양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는 牧師판을 새로 찾고 지난 一月十日 정인수목사님 가족의 이사를 마쳤다 새로 세운 목사판은 현재의 예배당 근처 교포집 중지대인테 건평 32평에 약 300만원을 드려 비품 설치 전화까지 완비했다

住所는 八尾市竹濤320

電話는 大阪(709)1559

福岡教会負債清算

福岡교회는 부채 七〇만 원때문에 현당식도 못하고 새해를 맞이했었으나 금년 부활절까지는 부채를 가리고 현당식을 하도록 되리라 한다

부채청산은 세계교회 활동운동자금을 얻어 정리한 것인데 이같은 게-쓰는재일 한국기독교교회당 건축에 있어서는 처음되는 일이다

平野牧師館完成

電話도新設

平野教会(丁仁壽牧師)에서

活動的教師를 期待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노회 여전도회의 여전도사파견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일본에 와서 전도활동을 전개할 이 있어서 가정적 구속이 없는 사람이면 받아드릴 용의가 있다고 답신을 하계되었다 한다 이 문제에 양해가 성립되면 불원간에 여전도사가 오게될것으로 기대된다

教青의 使命에는

선교와 交際가 중심

개회예배 설교에서 초기 청년국장이었던 김원치목사는 교회청년활동의 결어은 길은 발전적인 오늘에 이르렀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으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하며 사명적인 복음전도로 많은 동포자들이 어두움에 빛을 보고구속의 은혜에 접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 사명을 다하도록 거기 필요한 반성

西南地方各教会猛活動展開

特別集會에는 本國서 강사渡來

西南地方會에서 개최하는 지방회 수양회에 강사로 장하원(張河源)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다

총회는 그외도일(渡日)수속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熊本教会堂은 新築

熊本교회예배당은 시가지 정리 계획 때문에 958 만

원의 보상비를 받고 이전 신축을 하게 되었다

熊本교회원들은 개축을 계기로 보다 훌륭한 예배당을 세우려고 150만원의 현금을 하고 건축위원회의백만원 보조를 얻어 1200만원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下関은 幼稚園設備

下関礼拝堂을 수축하여 별

良書紹介

池東植牧師外十一人執筆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46版 208面 70원

젊은 知性人에게

46版 256面 150원

어거스틴懺悔錄

46版 280面 150원

본그리스도

46版 288面 130원

殉教史話集

46版 312面 150원

이것이냐 저것이냐?

46版 252面 150원

韓國의 講壇

46版 262面 150원

韓國宗教와 基督教

46版 278面 250원

基督敎와 韓國思想

46版 276面 250원

哲學과 宗教의 對話

46版 430面 300원

財團法人 大韓基督教會 對替 서울 一三九番

国土分断에 教会의 責任은

反目、敵對視에 和解工作

独逸 오토·디베리우스

저는 불행이도 한번도 한국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일본을 통해서 국동의 여러나라를 접착해 보는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한국의 양단된 것이 다시 통일이 되겠는지 그리고 된다면 언제 되겠는지 판정을 내리기는 심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나는 세계역사를 통해서 안겼습니다. 마는현대에 있어서는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가 두동강이로 갈라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통된 언어와 문화 특히 공통된 종교를 통해서 엄밀히 밀착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어느기간 동안은 인력으로 이런것들을 집어 치워 버릴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사실은 다시 합쳐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전통과 동일한 경제적인 관계와 그리고 동일한 종교를 가진 국민들은 다시금 합쳐질 것입니다. 설사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래 어느때고 이러한 나라는 합해지고 말 것입니다. 독일로 말할지라도 양단된 나라입니다. 독일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적인 지역이 삼분지일을 차지하고 있으므로이 지역 곧 독일 민주주의공산국과 독일 연방 공화국과는 갈라져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러한 양단된 상태가 계속될런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전에도 벌써 여러차례로 갈라졌었습니다. 많은 언젠가 다시금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합해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통일을 위하여 도와야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인간이 분열되었다고 해서 서로 갈라져 있게 한다는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인것입니다. 형제간에 반목해서는 안되겠으므로 화목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치문제에 가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문제삼아야만 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이『로시아』의『랑크』의 도움을 받아 백령을 침단하여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죄악으로만 정합니다. 이 성벽 저쪽에도 우리 독일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정체는 우리『크리스찬』들과 동양으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형제는 가능한 방법으로 화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하겠읍니다. 우리는 서로 좋게 얘기를 해야겠고 피차가 반목과 대립을 원동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평화적인것을 바라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저쪽 지역에 속하는 국민들을 협조할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목이 속히 극복 되어 지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역시우리 주위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러한 재통일을위해서는 큰 희생을 각오해야 될것을 알려주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그렇것저너와 개인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민음을 의심해서는 안되겠읍니다. 공산주의의 현대는모든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편승해서는 안되겠읍니다. 우리의 해결은 평화스러운 마음을 길르고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사랑을견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찬신문에서>>

宣教 60 周年 記念 準備

記念禮拜堂은 熊本、大阪、品川에

재일한국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지 60주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총회는 70주년을 맞을때 까지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1) 기념행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것
- (2) 지방회 단위로 집중전도 지역을 설정하고총력을 경주하도록 할것
- (3) 개척전도지를 조사 선정하여 총회적 기념이 되도록 선교활동을 전개할것 등이다.
- (4) 60주년 기념으로 회당을 세우도록 하는활동을

에 있어서는 현안중인 이하 각 교회와 협력하여 기념예배당을 세우도록 할것 熊本、水島、桑名、品川

(5) 기념예배당 건설에는카나다와 일본 각교회의 협력을 얻도록 되었다

般橋牧師館火災

關東地方산하의 般橋교회 는 지난달에 화재로 牧師館을 태웠는데 총회산하의 각 교회는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총액 70만원의 복구비를 방조하기로했다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생의 궁극적 의의를 설명해 주는 것이며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새로운문제에 근접 하려고 하는인간의 마음을 적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있도록 해도와 고평가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사도신경은 그리스도 교도들을 신앙적으로 연결 시키는 능력이며 그들이 당면한 모든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신경은 역사의 변천

福音宣教에 民族은 障害나

나 증 남

在日大韓基督總會에 所属된 指導者란 분들중에 民族과 國家를 超越한 福音宣教를 牧師職의 使命이라고 하면서 日本에서난 在日僑胞의 子女들을 指導하려는분들이 있다.

僑胞들의 子女란 거이다. 日本國民教育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리의 同胞임에는 틀림없으나 祖國을 日本國民教育속에서 日本을 祖國이라고배워 왔다. 우리들이 日帝時代에 皇國臣民教育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 그들은 祖上의 나라實情을 모르고現時點에서 한국의 南北政治經濟社會文化의 落後現狀만 強調된 메스컴의 세례를 받고있는 사람들이다.

在日大韓基督總會는 그들에 福音을 傳하려한다. 그러나 거기에 애로가있다.

그것은 國語를 모르는二世三世란 것이다. 敎役者中에도 二世의數가 많아져가고 있다. 그들의 便利한言語는 日語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 日語를 常用化하고 있다. 그것이 國語가 아니었다면 국어를 배워야한다는 義務感은 고사하고 福音理解를 強調하는남아에 堅實한 民族意識에서 育成시켜야 將來에 有能한人材가 되리라고 強調하는階層과 對立的 發想을 正當化시키려는 분이 露骨的

으로 발언 활동하게까지되었다.

여기서 問題點은 基督教라는것을 듣고 가장 宣教使命에 불타는듯이 福音理解가 선행해야한다는主張이다. 敎會는 國家 民族을 超越해야한다 고 強히主張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國語를 모르면서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二世들에게 歡迎을 받는다는點勝點이 있는것 같이 보는데 있다.

그러나 基督教을 이렇게 利用하려는것이 正當할까. 自己를 모르고 自己形成의基礎를 福音과 民族에 두지 않고 社交的利用物로敎會出入을 한다면 基督教조차 폐해를 받을 우려가있어 보인다.

예수께서는 自己民族을 무시하기는 고사하고 優越的으로 생각하셨고 弟子와바울도 그랬고 改革者루터도 우선 聖語를 原典에서 自己民族方言 독일어로 번역했다는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가.

이대로 가다가는 在日한인敎회가 同化敎育의 전위 가될 가능성이 강함을 경고 한다.

우리는 동포를 위하여 살고 동포는 조국을 위하여 살고 조국은 세계평화에공헌하기 바락 마지 않는다

을 따라 전해 내려온 한 사상의 모형일뿐 아니라 그것은 날마다 새로와 지는 경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앙성서에 나타난 능력 있는 실상은 오직 생명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 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실로 신앙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알락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는 철학자들이 아니라 누더기를 걸친 어로 목수 천막집는 직공들의 대답한 모형가들이었다. 그들은 인간 예수를 만나자 두번 다시 경험 할 수 없는 놀라운변화를 받았고 그 결과 그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백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주님의 부락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의 선교대에 한 사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기초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후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천을 거듭하여 오늘의 형태를 보게 되었다.

경험의 세계가 넓어짐을 따라 현대인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되었고 현재 사는 이 세계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냐 하는 세계의 성격에대한 근본적인 신념이 필요하게 되어 마침내『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오며』하는 몇마디를 보충하게 되었던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에대한 증언인 것이다. 즉 이 세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고백이다.

使徒信條이란 무엇인가

信仰의 基本形을 찾아 (3)

오직 생명이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있으며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나 하는 문제에 대하여 옳은 이해를 가진 사람만이 오늘날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해답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직면에서 일시적으로 된 해답으로서 만족하는 사람과 깊은 신념에서 나온 해답을 지니고 있는 사람과는 천

양지차가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착한 뜻만으로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할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들은 조만간 쓰라린 한탄을 맛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랜 그리스도인의 중심 신조들은 아직 까지도 생명적인 중요성을 발휘 하고 있는것이다. 물론 이런 신조들은 새로운 인생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않지만 그것들은 사상의 기초가 되고 끝자가

神の叫び

イザヤ47:8-11

金元治

1、一生涯、不幸や失敗なしに無事にこの世をくらすと考える楽感的な人もいる。それでなくとも、金銭、名誉地位、知識教育、技術等によってうまくこの世をすごせると考える人が殆んどである。

(マタイ24:37-39) このような人に対して、聖書は警告しておられる。自分に末亡人になることもなければ、子を死なせることもないと思っている人よ、あなたが一日にして夫を失い、子供をなくす時が来るであろう。その時にあなたは、どんな方法や魔法をつかっても最早やその不幸から逃れることはない出来ない。自分のもっている富も、名誉も、知識も何んの役にたたない時が必ず人間にはやって来る。このような不幸や災害に対して心の準備をしているだろうか。(黙16:15)

2、不幸というのは、悪に対する天罰として、おこるのだと考える(ルカ13:4)人もいるが、そうではない。不幸、災難というものは、人の思いがけない時にやってくるのである。それからのがれようと思って、人間が必死になってくいとめようと思っても止まらず、神に切に祈っても、神は沈黙を守って答えて下さらない。(詩83:1)このような時人間は、神に対して不信を抱くのであるが、神の沈黙は最良の解答である。人間は後になって既に最良の返答を神が下さったのを知る事が出来る不幸を通して神の栄光を現わし人生の深い意味と生きがいを感じる事が出来る。(ヨハネ9:1-7)

3、神の叫びは遠い昔のことではなく、今私たちに聞えて来る。私たちは神を信頼しないで、物質に依存している。

自分の魂がどんな状態にあるかも顧みない人に主イエスは例話である人が農作物が豊かに実ったので、その穀物をしまいこむ倉庫を建てて「我が魂よ安心せよ、長年分の食糧があるのだから、飲めよ、食べよ、楽しもう」と自分に言い聞かせた時、神はその魂をその夜取り去ってしまった。そうしたらそのあてにしていた財は誰のものになるの

かと言われた。(ルカ12:17-21)人間がこの世の物質や教育、財産、名誉にあくせくして、神を神として崇めず、礼拝も祈りもしないのは、これと全く同じである。(ピリピ3:19) 私たちにも、無事だ、平安だと思っていると、このような不幸に合う。だから常に主を仰ぐ信仰をもとう。

(テサロ5:3)

(西成教会牧師)

全国青年修養会 (1967年度)

主 題 「僕 の 働 き」 聖 研

人間となられたキリスト

ピリピへの手紙 2:5-11

金得三

これは、原始キリスト教会で用いられた、有名なキリスト讃歌である。神と等しい方でありながら、己を空しくされた神の子の謙虚さ。その前で、いやしい人間でありながら神と等しい栄光を望み常に神の如くになろうとするアダムの子である私たちは、砕かれ、ひざまずいて、礼拝せざるを得ない。

「ある若い母親が二階の座敷で裁縫をしていました。下の庭でその幼な子が女中のおもりで遊んでいました。ところがふとしたはずみで幼な子が池の中に落ちこんでしまいました。大雨の後の池は深く水をたたえており、子供はおぼれかかりました。その時母親はどうしたでしょうか。二階から池の中へ飛び込んで子供を助けたのです。」北森嘉蔵著「聖書とことどころ」より。キリスト教という時、時間や空間をこえた真理観念として受けとられる危険がある。そ

してキリストさえもそのような本質のシンボルのように考えられやすい。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あの時、あの場所で生まれた歴史的人間なのである。即ちイエスの誕生は普遍的なものが、具体的なものに、永遠的なものが時間と歴史の中に入られたというかつてなかった事であり、それ故に今日肉体を取り、時間の中に生きている私達が、イエスという存在に絶えず問われる関係にあるという事である。しかし、一人格のうちに、神の子と人の子の両性を備えた人間は、まことに説明することも、理解する事も困難である。キリストの受肉は、私たちの理性では到底把握出来ないことであり、人間に対する神の愛の究極の姿として、キリストの降誕があり、以後に始まるその生涯は、信仰告白の形においてのみ始めて理解されるものである事を示している。

神の「かたち」(モルフェー)は、「性質」と解する説と「外貌」と解する説がある。しかし、人となられた神の子は、全く神でなくなったのではなくて、人間の外貌の中に神の子が隠されていたと解するならば、後者を取るのが自然であろう。カルピンはこれを「神の尊厳」を意味するという事は、キリストは始めから存立し、神と共にあり、神であった事を指している。この先在のキリストについては、(ヨハネ1:1-14、コロサイ1:17、ヘブル1:3)にその神性創造者、万物保持者、主権者としてのキリストの姿を示している。「固守」は獲得物とみなすという意味がある。これは、キリストが神でなかったのに、後で神性を獲得したと解してはならない。クリソストムは「キリストは神と等しくあられたが、それを、あたかも盗人が盗品を固守するようには、固執されなかったのである」と云っている。

「おのれをむなしらして僕のかたちをとり、人間の姿になられた」このキリストの受肉という事件は、ケノーシス(謙虚)説となって展開されたものである。地上のイエスは、神が人間に仕える為に一人の人間となり、人間の現実を生きぬかれた。即ち、聖書に記されているその人間像は、飢渴き、疲れ、痛み、憂い、喜び、涙して悲しみ、怒り(ヘブル4:15) 真の人間であった馬小屋に生れ、枕する所なき生涯を送り、人間として、貧しさ、汚れ、不安のうちに生活し、最期は二人の死刑囚と共に十字架に処刑され、死後は、人の情で 借りものの墓(ヨハネ19:41)に葬られた。僕のかたちとは神のかたちに対比し、イエスが受肉前の尊厳あふる状態を全くすてて(神性は捨てない)僕なる人間そのままの状態となられた事を意味する。更にキリストの自己犠牲の道は、受肉の行為

にとどまらず、罪人の反抗と神の審判を一身に受けて死なれたという極点にまで達したパウロは、キリストの死を「十字架の死」とであると叫ぶ、そして、このような神の子の徹底した自己忘却的、自己犠牲的行為のみが、人間回復の唯一の道であった事を強調する。真にキリストは真の人であると共に、又それ以上の方である。そのキリストが20世紀の今日(ヘブル13:8)生けるキリストとして、私たちを救い、守り、導きたもうのである。このように、キリストの受肉は単に神が人間になった事ではなく、人間を人間としてとどまらせているもの、即ち、罪を己自身の上にとられた事を意味する。神の救いの計画の実現の為に、十字架の死に至るまで神意に従順であったのである。人間の救いは神の子がこの世に来られた事により成就した。アタナシウスは「われらが神の子となる為に彼は人となった」といっているが、このキリストの下降の道の極点から神は新らしい上昇の道を開かれた。死と滅びに全くのみ込まれたイエス・キリストに、神は世界万物よりもはるかに卓越した位置を与え、これらがこぞって礼拝を捧ぐべき方(「ひびをかかめる」一礼拝の姿勢士エ王19:18、Ⅱ代6:13、エペソ3:14)「主」とは神そのもの、神のみに用いられる名一出エジプト34:6)である事を顕示された。キリストは謙虚の道と卑賤の道と僕の道を通して真の勝利の力を発揮された。クルマンは「イエスは主なり」とは最初の信仰告白というべきものである。他の何ものをも神化することなく、かのベツレヘムに生れ私達の為に死んだイエスのみを神と信頼し私達の為に僕となられたイエスを「わが主わが神」と告白することが、キリスト信仰の出発点であり根本であり、全体であると、云っている。

(熊本教会牧師)

社員募集

男・女 若干名

中 卒 以 上 年 令 不 問

待遇 初任給 男 23.000 円 女 18.000 円

※ 経験者は委細面談の上

オフセット

活

版

印刷

僑

文

社

(福音新聞専属印刷所)

大阪市西成区梅通5-2

661 - 4 6 6 9

在日韓国キリスト教会の問題点

(最終回)

潘 秉 燮

(3) 言語の問題

私は、今年初頭、講師として宇部と小倉の両教会の集会を導いたことがある。宇部教会では思いきって説教の三分の二を日本語で行った。その為に老宣教師朴先生だけは、何が話されたかをよく理解出来なかったことであろう。しか、朝、昼、晩と三回に亘って行われた集会は、比較的多くの青年達が集まり、しかも長い説教をよく聞いてくれたその中の一高校生は私に「今度の集会を通じて、将来牧師になる決心をした」と語ってくれた。宇部での青年達との交りは私に深い印象を残している。

反面に、小倉では専ら母国語で説教をした。教会の雰囲気は多少宇部とは違うと思ひ日本語で説教するよりむしろ母国語で説教すべきだと私なりの判断をしたからであった結果として、集会の最後の夜になったら、母国語がよく出来ない青年達はほとんど姿を見せなくなっていた。私は、なんとなくものたりない思いを胸にして汽車に乗った。

在日韓国教会の総会は、日曜日の説教を必ず母国語でするように決めたと云う。けれども青年会或は教会学校の場合は日本語で話されている。ここに在日韓国教会の大きなやみと問題点が示されてはいないだろうか。

日本で育った韓国人の人達に対し、いかに母国語の習得を強要しても、言葉と云うもの

は、必要性に応じて普及されるものだから、そこではまずその必要性如何が問は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僑胞の現状として、子供は必要性に応じて生まれながら日本語を習い、大人達は子供等との対話の為に家でも日本語を使っている。更に社会に出ればつきあう人は日本人であり、たとえ韓国人どうしても日本語を使っているようである。日本における日常生活語が日本語であることそれは現実なのだ。実際、在日僑胞社会に於て母国語はだんだんなくなりつつある。人生に於て、言語は一つの手段であって目的でない以上、この必然的適合性はどうすることも出来ないだろう。

このような状況の下にある在日韓国教会が何故必ず韓国語で説教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教会は福音を宣べ伝える為にある。だからこそ教会はその地域にあって、その地域に住む人々を支配している状況を理解することなしにはとうてい伝道など出来ないのではないか？

キリストは世の人を救う為に世に降り人となった。パウロは「自ら進んで奴隷になりユダヤ人のようになり、律法の下にある者のようになり、時には律法のない人のようになつた。福音の為にどんなことでもする。それは共に福音にあづかる為である」と(1コリ9:19-23)述べている若い人達で教会で説教を聞

く為に母国語を勉強する人はいないだろう。福音が伝達される媒介としての言葉が通じないとき伝道はなりたたない



二月カレンダー

過日大阪のK.C.Cで、青年問題研究会が開催された時「来日」の発題の中で、在日韓国人二世が、在日韓国人社会……(それぞれの)で、客人もしくは少数でなく、しだいに、主人公もしくは主体として登場していることが、「現実」であり、かつ「明白」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言うまでもなく、時間の自然の流れがしからしめるものである。だが単に、我々二世がこの社会で主体的存在になると言うことを喜ぶと言うのではなく、責任を明日に自覚しようと言う処から、主人公もしくは主体と言うのであって、他意はない。

そこで、我々「在日大韓基督教教会の明日」を思う時、永遠と言う意味での明日ではなく、百年二百年と言うこの世間的時間の将来を思う時、今日までは、在日韓国人として「運命共同体」でありえたしかしこれからそうだと、確信するわけにはゆかぬ昨今である。我らを結ぶ「き

づな」と言うものを明日にしなければ、その責任と言うものを自覚するわけにはゆかぬまづ、我らの姿勢が、祖国に帰るゆくと云う日本での客人としての姿勢であつてはならない。それは、日本に同化して行くと言う意味ではなく、日本の社会で、主体性をおびると言う意味である。別な言葉を借用するなれば、在日韓国人が、日本の社会に於いて、流れ者でなく、土着化して行くと言う意味である。しかし、唯、単に、時間の流れが、そうだから、と言うのでは、意味がない。そこには自覚された土着化がなされねばならぬ。自覚された土着化の中の一つに、キリスト者としての信仰のきづなが、存在しなければならぬ。キリスト者として、キリスト者に対する問題、愛はあくまで内側のものであろう。外側への問題としてキリスト者の愛を実行してこそ、我らの明日を希望あるものとする「きづな」が存在する。

べて題目は余りにも大きすぎた感じがする。私の足りない識見の故、せつかく与えられた紙面をより有効に充すことが出来なかったことをお詫びしておきたい。然しこの小稿で多少なりとも在日韓国教会の直面する問題点が提起されその解決への道をみなさんと探すため何かの助けとなれたら幸いと思っている。

(終)

(ソウル東園教会牧師 現在同志社大学院で研究中)

或る意味では、在日韓国人の土着化の一つに、「キリストによって」と言う。明白な一つのプログラムがある。このプログラムの故に、在日韓国人キリスト者の姿勢、もしくは、用語等の問題が、問題となって居る。

しかるに、先人達は、自分の意見に従はない時、すでにその時限で、反対者を民族反逆者だと言う。失笑せざるを得ない。そこでは対話と言うものがない。故に、我らの急勢はなにかと言うなれば、対話の回復である。今日、世代と世代の間に、教会と教会の間に、親と子の間に、友人と友人の間に、あまりにも、対話が、ない。対話を回復してこそ、在日韓国人二世が、この社会で主体性をおびて成長して行く、先人の責任に於いて、対話を回復して行かねばならぬ。道険しくとも、なさねばならぬ、第一歩である。

(寿)

一九六七年度 関西地方高等部春期学校案内

関西地方にある諸教会の前進と青年会高等部の発展を祈りつつ、高等部春期学校が、次の要項で開かれます故、案内を致します。

一九六七年二月二日

関西地方各教会牧師 各教会 高等部

各位

記

関西地方青年部

◎ 主 題 「聖書と私達」ピリピ三：七—一二

◎ 日 時 一九六七年四月三日 (月) 午前十一時より

◎ 場 所 河内長野市観心寺 四月五日 (水) 午後一時まで

◎ 講 師 主 牧 松中亭 (電話七三五一二〇二)

◎ 主 題 A 金瓊燐牧師 (クラス一年担任)

◎ 主 題 B 金元治牧師 (クラス二年担任)

◎ 費 用 鄭寿千牧師 (クラス三年担任)

◎ 費 用 李成基青年部員

◎ 費 用 二千三百円

会場への交通案内

(1) 南海高野線

なんばより河内長野下車 (所要時間三〇分)

特急 急行 とともに停車

(2) 近鉄河内長野線

天王寺より河内長野下車 (所要時間四五分)

河内長野より駅前にて

観心寺行バスに乗って (約十分)

観心寺下車後歩二分

関西地方青年大会

◎ 一九六七年五月七日 (主) 午後三時

◎ 大阪教会にて

◎ 講師 金得三牧師 (熊本)

西南地方青年大会

◎ 一九六七年三月二六日 (主) 午後十一時

◎ 小倉教会にて

◎ 講師 金信煥牧師 (広島)